

연중 제 26주일

제 1독서 : 민수 11, 25-29

제 2독서 : 아고 5, 1-6

복 음 : 마르 9, 38-43, 45,
47-48

순정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르 9.41)

강론

소리

연대성

문규현 신부 / 요천 천주교회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일하러 가신 아버지를 하루종일 기다리곤 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잃은 애정을 아버지로부터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딸이 자신의 개인생활에 개입되는 것조차 싫어했다. 소녀가 어쩌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으려 하면 ‘애야, 아버지는 매우 피곤하단다. 밖에 나가 놀아!’ 하며 딸을 밖으로 몰아 내곤 했다. 소녀는 차츰 거리를 배회하게 되었고 애정을 찾아 헤멜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자라면서 자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표시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깊은 감동을 받고 그 감정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불행하게도 그 소녀는 타락되어 갔고 급기야는 창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죽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수문장 베드로 사도가 보고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저 소녀는 창녀입니다. 그녀의 갈 곳은 오직 한곳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예상밖의 말씀을 하셨다. “그 소녀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라.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소녀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O. Henry란 이름으로 유명한 William Sydney Porter의 단편 이야기 중 기억나는 한편이다.

O. Henry의 주제는 분명하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다. 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위해 할 일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좋은 나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다른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더욱이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연대성 안에 존재한다. (로마 12, 1-2 참조)

O. Henry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마땅히 보여져야 할 행동, 사랑 혹은 애정의 문제는 다름 아닌 이기적이고 분파적인 우리의 문제라 할 때, “나를 믿는 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르 9, 42)는 말씀이 목에 걸린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연대성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 간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욱 그 이름에 걸맞는 집단이 될 것인데... 그리고 같은 정신으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은 삶의 터전이 될 것인데...

세례로 다시 난 사람답게 죄악의 반대인 선행으로 나아가자.

집 못 찾은 조상님들

해마다 두 차례, 추석명절과 설명절은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조상과 부모, 그리고 고향을 찾아서 삶의 자리를 옮긴다. 뿌리를 찾는 민족의 행진 동안, 어떤 이들은 3일연휴 가운데 이들을 노상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토록 고생스러워도 이 행렬은 멈추지를 않는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괴상한 풍조가 생겼다. 큰 집이 있는 고향 대신 콘도를 찾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많은 우스갯소리도 생겼다. 이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관 속에 뼈뼈를 넣어드려야 한다는.

산업사회 이후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개념이 자꾸만 희박해지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의 어른들은 쉽사리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고향이란 조상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이요, 또 조상님들의 뼈가 묻힌 곳이라서 더 그랬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도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떠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의미의 크기 또한 더하다.

그런데도 고향을 마다하고 콘도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쩌면 마음의 고향을 잃은, 생명의 뿌리를 잃은 가슴이 메마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도 윤기를 잃게 마련이다.

이제 순교자 성월의 막바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국제화 시대라는데 누가 시비하리오 마는 그래도 우리 뿌리부터 찾아보자. [用]

순정이 산책



가정의 해 - 모범가정을 찾아서⑤

임병구(안토니오) · 김운태(세실리아) 가정

용안. 천주교회

외작교우로서 혼배성사를 받지 않은 조당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족. 그 다복하고 따뜻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생활을 하는 이 가족이 이런 은총과 사랑을 흐르는 물처럼 곳곳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고 있어 소개한다.

전북 익산군 용안면 중신리에 살고 있는 임병구(47세, 안토니오) · 김운태(42세, 세실리아) 부부의 가정으로, 노모(장순례 모니카, 84세)를 모시고, 해연(고3, 젬마), 해주(중3, 보나), 해관(중1, 사도요한)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단란한 가정이다. 남편이 장로교 신자라 혼배성사를 받지 못하고 조당인 상태로 냉담을 하다가 용안에 성당이 세워져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 했지만 성체를 모실 수 없어서 그것도 어려웠다. 그즈음 친정 할머니님과 친하신 고 데레사(합열 전교회장 역임)씨를 만났고, 그분의 애쓰심과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80년 4월에 드디어 혼배성사를 받게 되었다. 지금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체를 모시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세실리아 씨의 얼굴에서 환한 행복감을 느낀다.

더불어 늘 말없이 사랑해 주시고 대세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에 대해 “원래 유교집안이었는데도 제가 성당에서 교육받고 늦게 돌아와도 꾸지람 한번 없으셨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도 해주셨지요. 더구나 시아버님은 향교의 전교(典敎)님과 전라북도 유도(儒道) 회장님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도 평소엔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지요. 병원에 계실 때 신자들이 와서 기도해주면 좋아하셨고, 특히나 박종근 신부님께 안수받고, 천주교의 근본교리를 들으시고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성령세미나를 통해서이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여년 동안 성체조배와 간절한 기도를 하던중, 본당 교육관을 짓기 위한 성령세미나가 있었고, 수차례의 권유와 설득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 삶을 살아가는데는 인내와 노력이 없이는 안되는 것일까? 그 주일 미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아무리 권유하고 줄라도 남편은 완강하게 거절하며 아버님 살아 생전에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도저히 안되겠다라고요. 주님께 완전히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남편을 당신께로 인도할 수가 없으니 당신께서 알아서 해 주시라구요. 기도하는 중에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89년 5월에 임병구 씨는 안토니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현재 임병구 씨는 용안 본당에서 꾸리아 단장, 교육부 차장으로 매 주일 미사 전에 신자 대상으로 5분교리를 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는 전북농협 천주교 모임에 참여해 전가족 성지순례를 하기도 한다. ME 교육을 통해 가정 안에서 사소한 생활나눔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선 대화라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부인 김운태 씨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과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성서말씀을 생활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매사에 감사하고 본당일에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간접선교의 역할도 크지요”라고 말씀하시는 본당 수녀님의 말씀을 끝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끔씩 다가오는 힘들고 아픈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서로 온유와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해하는 이 가족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 취재 : 김지연(마리아)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신속 배달
천호장 의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규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신속 배달
광진페인트
신축, 실내장식, 집수리 전문
김태정
원점순(젬마)
전주시 서서학동 152-3번지
☎ 88-7672, 88-1285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비뇨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종화(실비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잡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10. 형법 개정안 제135조 입법 통과는 결코 안된다

해마다 15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살해당하고 있다. 이는 정상 출산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른 바 '낙태 천국'이라는 이 땅의 현실이다. 모든 사회악의 바탕에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릇된 풍조가 깔려 있다. 이러한 풍조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낙태'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국민 대다수는 물론 신자들조차 낙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필요하다면 낙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필요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인간은 비록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는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이다.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특히 지난 1992년 4월8일 형법 제4장 '낙태의 죄' 중 제135조(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이에 대한 교회의 반대 입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우리들에게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한국 주교단은 이 형법 개정안의 폐지를 위해 곧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105만9천35명이 기꺼이 동참, 이들의 서명 명부와 청원서를 '92년 10월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보급했고, 10주 된 태아의 발배지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이 개정 법안이 처리되리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35조는 낙태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낙태의 일부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절차 규정 없이 낙태를 원하는 임부와 그를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맡겨져 있다. 어쨌든 낙태는 지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도 개인도 그것을 허용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사회는 결코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마침내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다. 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 길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이 사회의 정의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일이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요심이 (1100) 김병오



사무원 모집

1. 자격: 천주교신자, 고졸이상(여), 컴퓨터활용가증자, 1973년 이후 출생자
2.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교동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명 3. 제출마감: '94.9.28(수) 18:00 4. 제출처: 천주교 서학동교회 사무실 ☎ 86-4929

호성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 때: 10월13일(목)~16일(일)
· 장소: 호성동 성당 (전라여중 뒤, 승마장 앞) ☎ 241-1140

성바로 수도회 (성소자 대표집)

· 일시: 10월1일~3일
· 장소: 성바로수도회 본원
·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젊은 남성
· 회비: 10,000원
· 준비물: 성서, 필기도구

마리아의 종 수녀회 (성소자 피정)

· 일시: 10월8일~9일 오후 7시30분
· 장소: 마리아의 종 수녀원 (충북 청주시 울랑동192)
· 준비: 신약성서, 필기도구
· 회비: 5,000원
· 문의: 청주본원(0431)211-8261

교구 소식

- ※ 군인주일 2차 헌금: 10월2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1. 교구장 사목방문: 9월30일(금) 해성중·고등학교
- 2. 천호 피정 안내: 9월28일(수), 주제-선조들의 신심, 강사-김진소 신부, 문의 73-6600
- 3. 사제 평의회: 9월29일(목) 오전10시 교구청
- 4. 치명자회 성지안내 교육: 9월26일(월) 오전9시 전동 성당
- 5. 교도소사목후원회 피정: 9월26일(월)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준비물-미사도구, 회비-3천원(점심 제공)
- 6. 종교음악연구회 월별모임: 9월26일(월)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 7. 은혜의 밤 철야기도: 9월30일(금) 오후11시 전동 성당, 초청강사-김봉희(세자요한) 신부
- 8. '94동아시아 가톨릭 신문·출판인대회: 9월28일~10월1일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주제-TV와 가정, 참석자-일본, 대만, 마카오, 홍콩, 한국 언론인
- ※ 축! 영명: 27일(성빈첸시오) 이병호 주교님, 김진철 신부님
29일(성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범영배 박찬길, 경규봉, 이사정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수도회: 10월2일 오후2시 성바로서원 (0652) 252-3398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 일시: 10월3일 오전 11시
- 장소: 동창회관(본교 내)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조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까지, 12월배달)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문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두

◎ 연중 제 26주일

1. 미사시간 변경: 10월1일부터
* 저녁미사: 7시로, 다른 미사는 종전과 같음
2. 본당의 날 성지순례: 10월9일
장소-미리내 성지, 회비-10,000원
3. 청소년 농구 및 졸업기대회: 2일 윤호관
4. 반미사 안내: 인후9반 28일 전 10시
5. 모임: ①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제대회(27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9일 전 10시30분)
④울프레이(1일 장엄미사 후)
6. 금주 청소: 중노20, 23반
차주 청소: 중노24, 27반

◎ 연중 제26주일! (다음주일은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1. 구역반장회: 9월25일(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10월2일(다음주일) 오후 3시
3. 사목회: 10월4일(화) 저녁 9시
4. 자모회: 10월5일(수) 오전 10시30분
5. 영세식: 10월8일(토) 저녁미사중 예비자 집중교리-10월4일(화)~10월7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6. 성령쇄신묵상회 참가자 예비 모임
· 일시: 9월25일 11시30분
· 장소: 서학동 성당
※참가 신청자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바랍니다.
7. 성당 수녀원 축성식
· 일시: 10월2일(다음주일)
· 주제: 이병호(빈첸시오)주교님
· 행사 내용: 1부-미사
2부-축성식
3부-점심 및 흥겨운 한마당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평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1. 본당의 날 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나눔잔치
2. 성지순례: 장소-미리내 성지, 날짜-11월6일
회비-어른: 일만원, 어린이: 칠천원
접수-오늘부터 10월16일까지 사무실에
3. 병자 봉성체: 30일 오후 2시
4. 사목회 단합대회: 10월3일 오전 9시
5. 대건회: 10월2일 공식미사 후
6. 성당 청소: 겸손하신 자의 모후Pr, 셋별Pr
7.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강주호
봉헌-이상인
8.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정승관
봉헌-안철만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예비자 인도바랍니다.

1. 금주: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영세식(공식미사중)
③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④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2. 설모회: 27일(화) 오전 11시
3. 성가정회: 10월1일(토) 오전 11시
4. 차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청소년 농구, 단체 졸업기 대회(전 9시30분 윤호관)
③울프레이(공식미사 후)
④재속글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⑤요셉회(후 6시)
5. 95년 부활절 영세 교리반 개강: 10월2일(공식미사중)
6.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일요일반(오전 9시)-일반, 화요일반(오후 8시)-젊은이
목요일반(오후 8시)-직장인, 금요일반(오후 2시)-주부, 노인
토요일반(오후 4시)-중·고등부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1.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1일(토) 저녁
③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 회비 납부의 날
4. 지속적인 성체조배: 신청마라(1주간 1번 1시간)
성체조배 교육-10월4일~6일 저녁미사 후(신청자)
5. 안나회 소록도 방문: 27일(화)
6. 수녀님 성령 쇄신 교육: 28일~30일
7. 금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8. 차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9.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욱 ②주영례
봉헌-최경림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양주태 ②송정자
봉헌-박순귀씨 부부

◎ 오늘은 본당의 날 성지순례 관계로 9시, 공식미사 없음

1. 교리반 안내: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오 말파 수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 말파 수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분당신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중고생 김 로마나 수녀
2. 유아 세례: 10월1일 후 3시,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3. 병자 봉성체: 30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4. 어린이양 잔치: 10월9일 성가정연대회 준비
5. 자선의 날: 28일 어머니, 아버지 미사 "이웃을 위해 사랑을"
6. M.E 나눔 모임: 27일 저녁 8시 "대회를 마치고 느낌"
7. 성령기도회: 27일 저녁 8시
8. 회의: 자모회-28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10월2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9. 교도사목후원회 피정: 26일 치명자산 전 10시30분, 회비-
천원(점심 제공) 미사도구 준비
10. 교도소 세례식: 28일 후 1시30분 후원회원 함께
11. 청소년 체육대회: 10월2일 오전 9시 윤호관
12. 초·중·고 교리교사 1,2차 피정 후 모임: 26일 후 7시

※ 용어 해설

피정: 일상생활에서 모든 업무를 피하고,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장시간 동안 자신의 새로운 쇄신을 위하여 자
신을 살피며 주님과 기도로 지내는 것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전동 교육관, 요한복음 강의